

김종호, 한국 선수 최초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金

결승전 '한 발 빼고 모두 10점' 명중...만형 최용희는 8강서 고배



김종호(현대제철)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컴파운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종호는 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 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시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컴파운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장정웨이(대만)를 149-145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26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2014년 인천과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서 열린 컴파운드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로는 항저우 대회 때 양재원이 유일하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김종호가 첫 결승 진출과 금메달을 모두 해냈다.

남녀를 통틀어 컴파운드 양궁 개인전 우승자는 인천 대회 여자부의 최보민 이후 12년 만에

나왔다.

컴파운드 개인전은 15발 합계로 승부를 가린다.

김종호는 이날 8강전에서 라오자하오(중국)에게 143-142 신승을 거뒀고, 가네쉬 마니 라트 남 티루무루(인도)와의 준결승전에서 5엔드에 '퍼펙트 엔드'를 만들며 148-144로 이겨 결승행을 이뤄냈다.

장정웨이와의 결승에서 1엔드 29-28로 리드한 김종호는 2엔드 3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59-57을 만들었고, 3엔드에도 10점 행진을 이어가며 89-88으로 벌렸다.

4엔드 이후엔 119-115로 틈이 더 벌어졌고, 무리 없이 끝까지 리드를 지켜냈다.

김종호는 결승전에서 세 번째 발만 9점을 쏘을 뿐, 나머지 14발을 모두 10점에 쏘는 신들린 기량을 뽐냈다.

1984년생 대표팀 만형 최용희(현대제철)는 8



1일 열린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장정웨이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김종호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전에서 당풍득(베트남)에게 143-146으로 탈미를 잡으며 탈락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컴파운드 양궁에서 김종호

의 남자 개인전 금메달 외에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고,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강연서)에 선 동메달을 수확했다.

양궁·유도·e스포츠·복싱 “오늘은 골든 데이”

2026 아시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에 2일은 금메달이 쏟아지는 날이다.

세계 최강 양궁 국가대표팀이 리커브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 3개 싹쓸이에 도전한다.

강채영, 오예진, 이운지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오전 9시 인도네시아와 단체전 4강전을 치른다.

결승에 오르면 인도-중국의 승자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김제덕, 김우진, 이우석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대만을 제치면 결승에서 인도-이란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혼성 단체전에서도 중국을 격파하면 인도-일본 승자와 결승에서 대결해 한국 양궁은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수확할 수 있다.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은 이날 아시치 스키아엑스포에서 열리는 결선 토너먼트에서 대회 2연패를 거뒀다.

e스포츠의 전설 LoL 이상혁은 “아시안게임 3회 출전을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적 자부심을 안겨드릴 기회”라고 금메달 출사표를 올렸다.

유도에서는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 여자 78kg 이상급 이현지가 금빛 메치기를 준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민중은 2022 항저우 대회 동메달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금메달을 노린다.

항저우 대회 우승자 김하운을 물리치고 대표로 선발된 무서운 신에 이현지도 금메달 최유력 후보다.

남자 60kg급 장동환과 80kg급 김민성은 각각 압두말릭 할로코프(우즈베키스탄), 안쿠시(인도)를 상대로 한국 복싱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해 돌주먹을 내지른다.



여자 양궁 금메달에 도전하는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 /연합뉴스

이건혁, 속사권총 개인·단체 ‘金 명중’



이건혁(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6 아시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2관왕에 올랐다.

이건혁은 1일 열린 대회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차 슈트오프(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추렌보판(중국)을 따돌리고 32점(슈트오프 합계 9점)으로 우승했다.

앞서 본선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확보했던 이진혁은 개인전까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속사권총이 아시안게임 개인전과 단체전을 제패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김준홍 이후 12년 만이다.

속사권총 결선은 점수제가 아니라 ‘명중’(1점)과 ‘실패’(0점)로 구분한다. 표적치 9.7점 이상 쏘아 ‘명중’이다. 8명의 결선 선수는 4초 안에 5발씩 쏘는 ‘시리즈’를 2번 치르고, 3시리즈부터 본격적으로 탈락 선수가 나온다.

6시리즈를 통해 동메달을 확보한 이진혁은 추렌보판과의 최종 8시리즈에서 명중부를 연출했다.



1일 열린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에서 슈트오프 끝에 금메달을 차지한 이진혁. /연합뉴스

먼저 사대에 선 추렌보판이 5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이진혁은 한 발을 놓쳐 두 선수는 32-32 동점으로 5발을 더 쏘는 슈트오프에 돌입했다.

1차 슈트오프에서 두 선수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4발씩 명중해 2차 슈트오프에 들어갔다.

추렌보판은 흔들린 듯 명중이 단 2발에 그쳤고, 이진혁은 5발 모두 명중하고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유도 첫 금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재일교포 허미미(경북체육회)가 2026 아시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허미미는 1일 열린 대회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아리운자야 테르비시(몽골)를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 유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허미미가 처음이다.

허미미는 경기 시작 12초 만에 업어치기를 시도해 유효를 얻었다.

기선을 제압한 허미미는 이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를 압박했다.

이후 허미미는 특기인 원팔 업어치기를 계속 시도하면서 기회를 엿봤다. 포인트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기 중반 이후로는 수비에 집중했고, 경기 종료 1분 10여초를 남기고 지도 1개를 받았다. 그러나 허미미는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쳤



1일 열린 유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허미미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경기 종료 20여초 전 기술적인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이후 누르기로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흘려보내 승리를 확정했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출신으로 2021년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했다.

KIA, 정규시즌 마지막 상대도 LG

잔여경기 일정 확정...남은 10경기 중 4차례 맞대결, 준PO행 최대 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정규시즌 마지막 상대가 LG 트윈스로 정해졌다.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만난다.

KBO는 지난달 30일 2026 신한 SOL KB O 리그 정규시즌 2차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편성된 경기는 1차 잔여 경기 일정에서 우선 취소된 뒤 편성되지 않았던 11경기다. 10월 12일까지 일정이 잡혔다.

KIA는 오는 9일 창원에서 NC와 맞붙는다. 이어 광주로 돌아와 10일 SSG, 11일

롯데, 12일 LG를 차례로 상대한다.

특히 마지막 LG전이 눈에 띈다.

지난달 30일 기준 KIA는 72승 60패 2무, 승률 0.545로 4위다. 3위 LG와의 격차는 2경기다.

KIA는 이날 KT에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하지만 LG도 패하면서 두 팀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KIA는 10경기, LG는 9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LG와의 맞대결이 4경기나 남았다.

당장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잠실에서 3연전을 치른다. KIA가 3위 추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승부처다.

그리고 정규시즌 마지막 날 다시 만난다.

장소는 홈 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다.

3위 경쟁이 막판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순위가 갈릴 수도 있다.

KIA의 남은 일정도 만만치 않다.

LG 3연전 이후 6일에는 광주에서 삼성, 7일에는 사직에서 롯데를 상대한다.

이후 9일 창원 NC전을 거쳐 광주로 돌아온다.

마지막 3경기는 모두 홈이다. 10일 SSG, 11일 롯데에 이어 12일 LG와 정규시즌을 마무리한다.

KBO는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에 우선 편성한다.

예비일이 없고 다음 날 동일 대전이면 더블헤더를 치르는 등 일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SOOP 수퍼스, 힘찬 첫발

3일 창단식·새 시즌 출범식...11일 KOVO컵 첫 선



전남광주특별시에 동지를 둔 신생 구단 SOOP 수퍼스가 힘찬 첫발을 내딛는다.

SOOP 수퍼스는 3일 오후 2시 SOOP 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창단식과 2026-2027시즌 출범식을 개최한다.

SOOP 수퍼스의 본격 출범은 AI페퍼스 해단 이후 끊임 위기에 놓였던 지역 프로배구 명맥을 잇는 것은 물론, 지역 스포츠 생태계 회복과 동계 프로스포츠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생 구단 SOOP 수퍼스가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출발을 알리는 첫 자리인 이날 행사는 창단식 및 공식의례를 시작으로 구단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알리는 구단기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구단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와 마스코트, 유니폼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어 새 시즌 코트에 나설 선수단을 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련된다.

선수단 소개 이후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창단 첫 시즌을 앞두고 각 오를 전할 예정이다.

창단식을 마치고 SOOP 수퍼스의 새 시즌도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들어간다.

오는 8일 V리그 공식 무대인 KOVO 미디어데이 참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여수에서 개막하는 2026 KOVO컵에 참가해 전력 점검에 나선다. 추첨으로 여자부 A조에 편성된 SOOP 수퍼스는 11일 IBK기업은행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3일 정관장, 15일 흥국생명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한편, SOOP 수퍼스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개막전, 11월 5일 오후 7시 한국도로공사와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2027시즌 V리그 대장정에 돌입한다.

/박희중 기자